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부활절... 이 땅에 부활의 산 소망을!

저녁엔 가브리엘찬양대 주관 부활절 음악예배

“사망권세 이기시고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절을 맞은 오늘 I·II·III부 예배를 부활절예배로 드린다. 예배 시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삶의 감격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다.

헌금시간에는 부활절 감사헌금과 고난주간 동안 절제하여 모은 금식헌금을 함께 드린다.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는 가브리엘찬양대

(대장 정병무 장로, 지휘 허희철 집사, 오르간 안진희 선생, 피아노 양경실 선생)가 준비한 찬양으로 부활절 음악예배를 드린다. 찬양은 예수님의 생애·고난·부활을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찬양곡들이 연주될 예정이다. 특별히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절정 부분에 이르러서는 참여한 회중 전체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찬양하는 순서도 있다.



목회자세미나 개강 지난 24일(월) 목회자신학세미나 제 11학기가 개강했다. 강남YMCA대강당을 가득 메운 전국의 목회자들이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사야서를 공부하자”

4월 첫 수요일예배부터 이사야서 강해

이사야서 강해가 4월 2일(수)부터 이종윤 목사의 설교로 매주 수요일 I·II부예배 시 진행될 예정이다.

이종윤 목사는 “주일 찬양예배 때엔 신약을, 수요일예배 때엔 구약을 주로 설교하는데 성도들이 참여해 신·구약 말씀을 골고루 배우는 기회를 갖기를 바란다”고 했다. 아울러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메시아 예언과 심판과 역사와 위로를 담은 책인 이사야서를 공부함으로써 혼란에 빠져 방향 감각을 상실한 개인과 우리 민족 사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다”고 했다.

우리 교인이 아니더라도 참여를 독려하여 함께 이사야서를 공부하고 이제까지 수요일 예

배에 참여하지 않던 성도들도 새로운 결심으로 꾸준히 참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주일 찬양예배 때엔 고린도전서를 공부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3년 9개월동안 수요일마다 공부해 오던 창세기 공부를 마쳤다. 우

이사야서 강해를 듣기에 앞서

- 이사야서 개요 -

- 주제 위대한 메시아 예언
- 예언한 기간 64년(BC 758 ~ 694)
- 저자 이사야
- 예언의 대상 유다
- 내용 분해
 - ① 택한 백성을 향한 선포(1:1 ~ 6:13)
 - ② 임마누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교회학교의 부활절 행사

사랑부 - 학생과 교사가 함께 벌이는 기쁜 큰 잔치 “예수 다시 사셨다”를 공연한다. 달걀, 백합, 나비 등으로 분장한 사랑부 가족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널리 알리는 삶을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 <이강인>

초등부 - “왜 부활절에는 달걀을 선물할까?” 그 연유를 알아보고 장식달걀 전시회를 연다. 미니 뮤지컬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만왕의 왕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처럼 승리하는 초등부가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도 갖는다. 성경퀴즈대회를 통해 부활에 관한 성경지식도 배울 예정이다. <조대영>

유년부 - 반별로 예쁜 달걀을 만들어 콘테스트를 한다. <유숙인>

고등부 - 이번 주에는 성찬예식에 참여하고 오래동안 준비해 온 성극을 다음 주(4월 9일) 집회 시간에 공연한다. 반별로 부활절 달걀 콘테스트를 열고 친교와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의 삶에 주는 의미를 되새겨 볼 것이다. <정규호>

리 교회 강단을 통해 전해지는 메시지는 모두 테이프로 보급되고 있으며 특별히 창세기는 두 권의 책으로 엮여졌는데 제 1권(1장 ~ 25장 11절)은 이미 발행되어 시판되고 있으며 제 2권(25장 12절 ~ 50장)도 조만간 출판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27일(목)에 개강하여 매주 목요일 새벽 6시 10분부터 7시까지 열리는 아담성경공부반에서는 율기서가 강해되고 있다.

(7:1 ~ 12:6)

- ③ 이방나라를 향한 예언(13:1 ~ 23:18)
- ④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24:1 ~ 27:13)
- ⑤ 이스라엘의 불신자를 향한 경고(28:1 ~ 29)
- ⑥ 히스기야에 대한 것과 역사적 기사(36:1 ~ 39:8)
- ⑦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과 회복의 예언(40:1 ~ 66:24)

『신구약개설』 (이종윤목사 지음) 중에서

부활절
메시지



“회의에서 신앙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2~19, 54~58절)

이종운 목사

오늘 아침 우리들은 한 위대한 힘 앞에서 있습니다. 그분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찾아다니시는 분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찾아가셨고 빈부귀천 춘하추동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 위대한 힘 앞에서 우리는 옷깃을 여미고 흔히는 산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강단에서 주지 못하는 큰 감화력을 갖고 찾아오는 고로 복석같은 무감각한 사람의 마음도 뜨겁게 녹이고 평시에 눈물 한 번 없던 영웅 호걸도 그앞에서 보면 후회와 분노의 눈물을 터트리곤 합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저지시킬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이 큰 매력 때문에 사람들은 그가 찾아주는 것을 싫어하고 그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관심밖으로 놓으려고 애를 쓰기도 합니다.

그 분이 누구입니까? 어느 위대한 스승의 말씀보다 확실하고 과학의 힘으로도 그의 위력 앞에는 대결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이 대체 무엇일까요?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황금과 권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위대한 힘의 이름은 사망입니다. 죽음말입니다. 죽음을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이 세상에 허다한 슬픔이 있지만 이별의 슬픔은 참으로 괴롭고 쓰라린 것입니다. 이별에도 허다한 종류의 헤어짐이 있지만 죽음의 이별은 후회하면 할수록 더욱 슬퍼지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아무도 이 사망의 위력을 이긴 이가 없습니다. 달려오는 자동차를 교통순경이 멈추게 할 수는 있으나 인간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멈추게 할 힘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하며 그러기에 사망은 인간의 가장 무서운 영원한 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 있는 인생은 마치 풀잎의 이슬보다 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사람들은 이 죽음의 문제를 심각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기를 시작했으며 이 사망 앞에서 공포와 전율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망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런 사망이 언제부터 인간에게 찾아오기 시작했으며 왜 왔던가요? 그것은 죄값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롬

6:23). 고로 인간에게 사망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운명이 된 것입니다(민16:298, 욥1:21).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고 바울은 다시 말씀합니다(고전15:55, 56). ‘쏘다’는 말은 독사가 독이든 이빨로 무는 것을 말합니다. 사망이 갖고 있는 독이 든 이빨은 죄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이 사망은 죄를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 죄가 없어지니 사망이 물고 쏘려는 초점은 없어지고 따라서 사망은 이빨 빠진 독 사처럼 무력해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죽음을 대신 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의 부활을 하시므로 그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망은 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 죄를 쏟아 놓으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표적이 아닙니다. 더 이상 회의의 늪지대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 믿는 자가 됩시다.

부활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아들 하나님을 살리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에서 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선포하신 설교의 내용이며 2천년 기독교 전통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신앙을 고백한 사람도 많았고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생명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었지만 처음부터 이 진리를 의심하고 따르기를 거부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승리의 부활사건은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졌고 친히 목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참여하지 못했던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라는 제자는 예수의 부활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디두모라는 말은 아람어로 쌍둥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는 두 마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즉 믿는 마음과 회의하는 마음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엔 언제나 이 두가지 그림자가 오락가락 하고 있습니다.

회;의는 인생의 수수께끼가 아닙니다. 회의는 심령의 질병입니다. 이는 새로운 생명에 의해 서만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철학자가 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회의는 영혼의 불쌍한 상태입니다. 하늘이 무너질까 의심하는 이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회의에서 신앙으로 대 전환을 한 대표적 인물이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불신과 회의를 십자가 밑에 묻어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부활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은 만민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

리스도께서 예언대로 사망권을 깨뜨리시고 3일만에 다시 사신 부활을 환희와 감사로 맞이하는 날입니다. 주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심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도 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들마다 나가서 전하고 주

안에서 다시 산 우리는 주님 위해 죽도록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어둠과 죄의 권세 하에 잡혀 있는 생명을 구원키 위해 그리고 밝고 생명있는 새 길을 보여주기 위해 민족과 시대 앞에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사망은 죄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우리 죄를 쏟아 놓으면 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의 죽음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표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 죄를 내려 놓고 불신, 불의, 불충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의의 늪지대에서 방황하지 말고 이제는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는 자가 됩시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외모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확연히 달라진다. 이미 닭이 계란을 부화할 때까지

품고 있는 계란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다. 그러나 21일이 지난 후 어떤 계란에서는 노란 병아리가 나오고 어떤 것은 병아리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을 깨뜨려 보면 그 속은 썩어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한쪽 계란에는 생명의 씨눈이 있었기에 부화되었지만, 씨눈이 없는 계란은 썩고 만 것이다. 오늘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겉으로 보아서는 별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눈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사망의 썩어짐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한 제자들은 주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모두 배신하고 그 곁을 떠났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 살았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은 변하기 시

▶부활절 단상

“생명의 씨눈이 우리에게겐 있습니까?”

김명현(목사, 11·12교구, 고등부 지도, 2교구)

■...겉으로 보아서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씨눈을 가진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사망의 썩어짐으로 나뉘게 될 것이다. 이번 부활절은 시작부터 잘못 되었던 우리들의 신앙관이 새로와지는 계기가 되어야겠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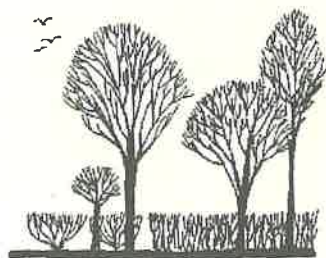
작했다.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생명을 내어 놓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변화시켰는가? 그것은 주님의 부활이었다. 부활을 목격한 그들에게 이제 죽음이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요 두려워할 것도 아니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그것은 신앙적 용기와 능력을 준다. 그러기에 부활 신앙

은 우리 믿음이 가장 핵심적 자리에 위치해야 한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헛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언제까지 썩어져 버릴 계란을 품에 안은 채 부화하길 기다릴 것인가?

이번 부활절은 시작부터 잘못 되었던 우리들의 신앙관이 다시금 새로와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도한다.

내 속에 있는 영혼의 계란에서 씨눈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 자신들이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순례길에서

生老病死와 영생의 신비

김광신 (장로, 장년부 부장)

우리 조상들의 지혜는 박사학위를 얼마든지 주어도 이갑지 않을 만큼 대단하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조상들이 발견해 낸 지혜와 지식과 창의력은 놀랍기보다는 신비 그 자체이다.

동서양의 철학자들이 인생을 논하였고 많은 뜻을 남겼으니 우리 조상들은 인생을 생로병사의 네 자로 정의하였는데 그 뜻의 심오함과 함축성을 무엇으로 비교할까. 인생의 뜻을 수백가지로 논하더라도 결국은 낡고 늙어지고 병들다 죽는 것으로 끝남을 부인할 수가 없다. 그 중에서도 생(生)과 사(死)는 누

구에게도 예외일 수가 없어서 피할 길도 없고 지름길도 없으며 공통분모이다. 다만 늘고 병들고가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나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어서 차별이 있을 뿐이다.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흔들 만큼 위대한 인간도 재벌되는 꿈으로, 갓가지 자랑으로 욕심을 내었어도 결국 그 많던 공적은 죽음과 함께 무위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계속 생로병사를 고집하고 있고 종착역에 와서야 허무와 허탈과 무상을 만나게 된다.

성경은 전도서 기자를 통하여 이보다 더 심한 말을 하고 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여 ‘헛됨’의 끝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완전한 허무 앞에서 우리는 어찌란 말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보낸 편지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련다”라고 하면서 생과 사를 문제 삼지 않고 그리스도를 문제 삼았고 그리스도를 주제로 삼았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몸이고 더 이상 인간이 아닌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의미가 있고 설명이 된다는 뜻이다.

그렇다. 생로병사는 과정일 뿐이고 의미는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의 의미이고 그 안에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는 신비를 맛보아야 한다.

✦ 순례자 컬럼 ✦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던 예수께서 죽으신 후 부활하시어 승천하시었다. 그는 이 땅에서 보이지 않게 되었고 약속대로 보이지 않는 성령을 보내 주시었다. 성숙하지 못한 신자들은 가견적 지도자를 찾게 되었고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소리없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상이나 우상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 예배하기를 즐겨하였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가르치심으로 공간적 신앙개념을 무너뜨리시고 영적이며 내적인 종교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셨다.

크기와 수와 양을 신앙의 척도로 오해하고 프로그램의 성공적 진행을 부흥과 성장의 기준으로 삼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탈신앙적인 것임을 인지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성령의 강한 역사를 통해 한국교회에 영적 각성과 신앙 갱신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제 8차 김치신학세미나 참가국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순례

몽골 (Mongolia)

- 면적 1,565,000km²
- 공용어 할흐 몽골어
- 수도 울란바토르
- 인구 2,596,000명(95년 현재)



■ 경제 목축업이 주산업이며 광물, 석유가 풍부하다. 바다가 멀고 경제, 정치의 고립, 소련의 원조 등으로 개발이 덜 되었다.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혼란으로 몽골 경제는 물자부족, 인플레이, 실업의 어려움에 처했다. 1인당 국민소득 \$100~200(미국의 0.5~1%). 국민의 40%가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다.

■ 종교 많은 몽골인은 정령순배자이다. 공산주의는 라마불교를 탄압했다. 마르크스 사상은 이제 쇠퇴하고 라마불교가 다시 득세하지만 종교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한다. 정령순배(샤머니즘) 50%, 라마불교 26%, 무종교 20%, 회교 4%, 기독교 0.03%

■ 몽골은 지금

- ① 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가 사치처럼 여겨지는 나라. 그러나 이것이 유지되고 정부가 이것을 지지하도록 기도하자.
- ② 몽골 근대 역사에 처음 생겨난 몽골의 교회: 신자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으며 새로운 개종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교회가 반대 가운데서도 성숙하도록, 은혜 가운데 질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도록, 형제들간에 진정한 연합과 사랑이 지속되도록, 사교집단과 신흥종교들이 들어와 혼란을 주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에 대해 분별력을 갖도록, 기독교인 가운데 겸손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나타나도록 기도하자.
- ③ 부흥하고 있는 라마불교: 1개밖에 없었던 사원이 100여 개 이상으로 늘어나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조상의 믿음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다. 몽골인들이 예수 안에 있는 완전한 영적 자유를 알도록 기도하자.
- ④ 절망적인 경제 상태: 경제적 어려움은 고통, 착취, 사회적 대변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범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고 알콜 중독이 만연해 있다. 정부의 현명한 대처와 기독교 원조 프로그램이 최대한 효과를 거두어 사회적·영적으로 유익이 되도록 기도하자.

환영합니다. 새가족 여러분!

* 3월의 새가족 *

강위성 김항기 신미정 박석환 오창근 윤준구 안정옥 윤모영
윤소영 박혜영 유명신 하혜화 박미경 유찬희 최지경 박지용
윤정아 최세영 안정애 한봉석 한송영 김영덕 강성수 서주연
서정호 조서희 이유미 윤종희 성주형 남은실 한충현 이윤정
이동만 김옥규 정 제 전영희 그리고 오늘 등록하신 분

고3을 위한 기도회

4월 13일(주일) 11시 고등부실에서는 고 3을 위한 기도회를 갖는다.

이날의 기도회에서는 취업과 진학을 앞둔 고 3학생, 재수생과 그들을 일년동안 기도로 후원할 후원자가 만나는 97년의 첫 모임이다. 후원자들은 취업과 진학을 앞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가치관을 세우고 실력을 쌓는 일에 정진할 수 있도록 일년간 기도로 후원하게 된다.

이 강좌에는 교회학교 교사 전원이 참석해야 하며 교회학교 교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장년부 교사 및 학생 그리고 교사교육에 관심이 있는 모든 성도가 참여할 수 있다.

'96순례자·주보 합본 발행

1996년 한 해 동안 발행된 순례자와 주보를 한 데 묶은 합본이 나왔다. 가격은 각각 5,000원, 3,000원으로 2층 테이프보급소에서 구입할 수 있다.

교사대학 강좌 ③

교회학교 교사를 위한 교사대학 세번째 강좌가 오늘 실시된다. II부 예배 후인 오전 12시30분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1시간동안 진행될 오늘의 강좌의 제목은 "교사 지도력 개발"로 강사는 장종철 교수(감신대)이다.

절제의 지혜를!

모두가 나라의 경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 우리 부서의 작은 일에서부터 낭비가 없도록 절약하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종이 한 장이라도 아끼는 마음을 가집시다!

■ 교우동정 ■

* 김상철 장로(4교구, 임마누엘찬양대 대장)은 한미우호협회 미국 동남부지부 창립차 도미하여 하버드 대학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강연하고 8일(토) 귀국할 예정이다.

* 서상근 집사(11교구, 잠실다락방)는 제일은행 본부 신탁부장으로 영전하였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대전기독교방송(HLAD FM 93.3MHz)	늘푸른 초상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강단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강단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부활신앙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3. 제 8차 김치세미나에 참가할 네팔, 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지도자를 위해
4. 새가족의 신앙성숙과 교회생활 적응을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